1/ 1980년대 소비사회와 소녀 물신주의(fetishism)

창작 주술 붐과 전생소녀 현상을 중심으로*

김효진

『나의 지구를 지켜줘』 애장판 1권 표지(출처: 알라딘인터넷 서점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6089600)와 『소녀민속학』과 『도쿄여자고교복도감』 표지(출처: https://twitter.com/japagajp/status/650739616782225408)

김효진(金孝眞)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조교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하버드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HK조교수를 거쳤다. 오타쿠 문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 일본사회의 대중문화 및 젠더 정치학, 한일문화 교류와 세계화 속의 문화민족주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젠더와 일본사회』(공저, 2016), 『여성만화연구』(女性マンガ研究)(공저, 2015) 등이, 주요 논문으로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大奥): 역사적 상상력과 여성만화의 가능성」(2014), 「서브컬처를 이용한 지역활성화의 가능성과 한계: 〈코미케 in 미토〉의 사례를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8-362-B00006).

https://doi.org/10.291514/ILBI.2018.18.034

1. 들어가며

인류학자 그레이버(D. Graeber)는 사회적 창조성(social creativity)을 새로운 사회문화적 형태의 창조로 정의하면서 물신(fetish)이라는 관념이 실제로는 "아프리카나 유럽 전통의 산물이 아니라 둘 사이의 충돌의 산물"이라는 피에츠(W. Pietz)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피에츠에 따르면 "그것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던 사람들의 산물이며, 서로 관계를 맺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무엇"이다.[1]

유럽인이 아프리카인의 "원래 기이하고 원시적이고 다소 난잡한 관습들로 여겨지는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2] 만든 물신이라는 관념은 흥미롭게도 1980년대 일본사회에서 나타난 소녀[3]들의 다양한 주술-종교적 실천을 살펴볼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80년대 일본 소녀들의 주술-종교적 실천, 즉 물신주의를 그 당시 도래한 소비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창조성'으로서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이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이 이 소녀들의 하위문화와 만났을 때 어떤 '번역'[4]이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는 1991년 출판된 『『리본』의 부록과 오토메칫쿠의 시대』(『りぼん』のふろくと乙女ちっくの時代)[5]에서 1970년대와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귀여움의 문화'와 소녀만화, 특히 만화잡지 『리본』(りぼん)에서 연재

1 데이비드 그레이버, 『가능성들: 위계, 반란, 욕망에 관한 에세이』, 조원광·황희선·최순영 옮김, 그린비, 2016, 182쪽.

2 데이비드 그레이버, 『가능성들: 위계, 반란, 욕망에 관한 에세이』, 182쪽

3 일본에서 '소녀'는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여학교가 설립되어 '여학생'이 탄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녀문화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여학교 설립 이후로 보며, 이는 성별격리문화(gender segregation culture)의 한 부산물이기도 하다. 전전 시기에 이미 소녀들을 위한 잡지와 소녀소설이 등장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고, 전후에는 소녀만화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또한 이런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와는 다른 풀뿌리적 소녀문화로서 '변체소녀문자'의 탄생, 그리고 그에 기반한 귀여움의 문화까지도 소녀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일본사회에서 소녀 및 소녀문화의 정의가 갖는 이런 다양성과 이질성, 모호성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룬다.

4 여기서 '번역'은 사카이 나오키가 제시한 '환승 중인 주체'(subject in transit)로서 번역 개념에 의거하는 것으로, 소녀들의 물신주의가 주류사회와 접속하면서 90년대 소녀들에 대한 물신주의로 '번역'되는 '비연속의 연속'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4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5 실제 이 글에서 참고한 것은 1995년에 지쿠마(ちくま)문고에서 출판된 문고판이다.

〈그림 1〉 산리오 '리틀 트윈 스타즈' 초기 디자인(1975~1979년)
출처: 산리오 '리틀 트윈 스타즈' 홈페이지의 디자인 히스토리(Design History) https://www.sanrio.co.jp/special/kikilala/history/h1975-1979.html

된 오토메칫쿠(乙女ちっく)[6] 만화와 그 만화의 작가들이 제작한 귀여운 팬시 굿즈(fancy goods) 부록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에서 그가 주목하는 대상에 당시 『리본』에 연재된 소녀만화에서 볼 수 있는 소녀들의 심상(心象)뿐만 아니라, 소녀들이 주위의 일상용품과 팬시용품을 소재로 고안하여 서로 공유하는 주술(おまじな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 현실로부터 유리된 소녀들은 팬시 굿즈를 그 주위에 배치하여 외부와 좀 더 완전하게 단절함과 동시에 그것을 자신들의 자연환경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것에 정령을 불러서 '주술'이라는 의례를 만들었다. 이 세계와는 현실에서 단절된 이 세계(異世界), 환타지의 세계다. … 소녀들의 일상 그 자체를 '소녀만화'로 변환하는 것이야말로 이 주술의 본질이 아닐까? 예를 들면 소녀만화 이야기 속에서 '주술'과 공통적인 사고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7]

6 오쓰카는 '오토메칫쿠'에 대해 특별히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여기서 오토메칫쿠란 "짝사랑을 가슴에 숨기는 가련한, 지금이라면 애매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여자아이"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다. 大塚英志, 『『りぼん』のふろくと乙女ちっくの時代』, ちくま文庫, 1995, 14쪽.

7 大塚英志, 『『りぼん』のふろくと乙女ちっくの時代』, 206~208쪽.

실제로 1980년대를 풍미한 '귀여움의 문화'에서는 이런 소녀들의 주술-종교적 모티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쿄 이케부쿠로 선샤인 도오리(サンシャイン通り)에 면한 빌딩 2층에 있는 '파르페 테라스 밀키 웨이'(パフェテラス ミルキーウェイ)는 80년대 중반에 개업한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카페다. '발견해주세요, 당신의 별을'(見つけてください, 貴女の☆★星を)이라는 테마로 서양점성술의 13성좌와 별 모양(☆★)에서 모티브를 따온 인테리어, 식기, 가구로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메뉴도 전부 서양점성술과 별, 그리고 우주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Hello Kitty'로 팬시굿즈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산리오(サンリオ)가 개발한 'My Little Stars'라는 캐릭터는 쌍둥이별을 의인화하여 남녀 쌍둥이 캐릭터로 설정한 것인데, 원래 1975년 산리오의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용으로 개발된 캐릭터로서 '꿈성운 다정함별'(ゆめ星雲おもいやり星)에서 온 캐릭터들이다. 쌍둥이별을 의인화한 이 두 캐릭터는 모두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을 위한 캐릭터로 탄생일이 12월 24일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쌍둥이별을 의인화한 점(서양점성술에 등장하는 '쌍둥이자리'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짐작됨)은 그 당시 소녀들에게 별, 달 등의 서양점성술과 천사, 크리스마스 등 기독교적 모티브로 대표되는 서구의 종교적 상징들이 소비 가능한 상품의 형태를 띠고 제시되었고 이들이 이를 기꺼이 소비했음을 잘 보여준다.[8]

나아가 1980년대 소녀들의 종교적 실천과 신비주의적 경향은 '귀여움의 문화'나 팬시굿즈의 다양한 서구 종교적 모티브를 넘어서 80년대의 대중문화에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드러난다. 이 시기 소녀들을 포함한 젊은 여성들은, 1960년대 후반 여성잡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후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 정착한 서양점성술[9] 등을 일상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끌어

8 서구적 종교성의 '팬시화'는 이런 서구적 종교성을 어디까지나 외부의 것으로 받아들인 일본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서구권에서도 점성술이나 기독교의 표상들은 상당부분 세속화되었지만 여전히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여움의 문화가 보여주는 탈맥락성과는 거리가 멀다.

9 일본에서 대중적인 점으로 서양점성술을 최초로 소개한 것은 1960년대 말 여성잡지였고, 최초로 별점 코너를 매호 정기적으로 실었던 것은 젊은 여성 패션잡지의 대표 격인 『anan』이었다. 「衰えぬ占いブ

들였다. 오쓰카도 지적했듯 주변의 소품이나 인간관계를 소재로 스스로 만들고 행하는 작은 주술(おまじない)이나 사랑점(恋占い)을 자신들에게 특화된 잡지 — 점술잡지뿐 아니라 만화잡지나 패션잡지의 관련 코너 등 — 를 통해 수집, 공유하고 확산시켰다.

이와 더불어 이 시대 소녀들이 갖고 있던 종교에 대한 관념을 보여주는 미디어로서 주목할 것은 바로 소녀만화다. 1970년대 르네상스를 맞이한 소녀만화는 내부에서 다양한 장르가 발전했는데, 특히 오컬트적인 요소를 반영한 호러만화가 70년대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생이나 신화, 잃어버린 대륙 등, 명백하게 70년대에 대두한 오컬트 붐의 영향을 받은 소녀만화가 등장해 많은 인기를 끌었다. 구체적으로는 본문에서 살펴볼 히와타리 사키(日渡早紀)의 장편만화 「나의 지구를 지켜줘」(私の地球を守って)를 비롯하여 미즈키 겐(みずき健)의 「시퀀스」(シークエンス), 후유키 루리카(冬木るりか)의 「아리즈」(アリーズ) 등이 대표적이다. 이 만화들은 80년대 초중반 오컬트 잡지 펜팔란에 등장하기 시작해 이런 만화들의 인기와 함께 많은 화제를 불러왔으나 관련 잡지의 폐간 및 관련 코너에서 배제되는 등의 조처를 통해 90년대 초반 자취를 감춘 '전생소녀'(前世少女)[10]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80년대 소녀들의 주술-종교적 실천과 그들의 미디어로서 소녀만화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왜 그들이 그런 기이하고 이상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사회 문제로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11] 특히 '전생소녀' 현상의 경우, 만화를 읽고 자신의 전생이 궁금해진 여

ーム 不安の裏返し女も男もハマる神秘」, http://college.nikkei.co.jp/article/97105210.html(최종 검색일: 2017. 11. 29)

10 자신의 전생이 서구·인도 쪽의 신화적 인물이거나 무대륙 등 초고대사와 관련이 있고, 특히 전사(戰士) 등이라고 믿는 소녀들을 가리킨다. 80년대 중후반부터 오컬트 잡지 펜팔란을 중심으로 존재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90년대 초반 소멸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르포기사들이 존재한다. 자신의 전생을 전사라고 밝힌 경우가 많아서 '전사증후군'(戰士症候群)으로 불리기도 한다. 만화문화의 일부로서 '전사증후군'으로 이 현상을 소개한 경우는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同人用語の基礎知識: 前世の仲間探し/戰士症候群」, http://www.paradisearmy.com/doujin/pasok7d.htm(최종 검색일: 2017. 11. 29)

11 전생소녀 현상에 대한 그 당시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이 글의 주요한 참고문헌 중 하나인

중생 3명이 전생을 보기 위해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등,[12] 주로 '철없는 소녀들'의 문제, 즉 미성숙한 청소년과 만화, 애니메이션의 영향 등 서브컬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일본사회는 70년대 일어난 오컬트 붐이 여전히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소비사회의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서는 새로운 종교성을 추구했던 뉴아카데미즘(ニューアカデミズム)과 수양을 통한 초월을 내세우는 옴진리교를 비롯한 다양한 신신종교(新新宗教)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소녀들의 소박한 주술-종교적 실천과 전생에 대한 믿음이 물신주의(fetishism)의 대표이자 일본인의 정신적 전통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호명되었는가?

이상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변체소녀문자'(変体少女文字)[13]에서 기원한 '귀여움의 문화'에서 발견되는 서양의 신비주의적·뉴에이지적 모티브와 소녀들의 창작 주술[주술(おまじない), 사랑점(恋占い) 등], 전생소녀 현상과 소녀만화 등을 통해 1980년대 일본의 소녀문화가 창조한 주술-종교적 실천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핀다. 나아가 이런 소녀들의 물신주의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을 오쓰카의 『소녀민속학』(少女民俗学)과 그레이버의 물신주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오쓰카의 『소녀민속학』이 소녀문화와 그들의 물신주의에 대한 '번역'으로서 어떻게 기능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일본의 종교문화에서 이 현상의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별책 다카라지마 92 소문의 책』(別冊宝島92 うわさの本)을 들 수 있다. 이 책의 부제는 '도시에 난무하는 이상한 일과 기괴한 소문/괴담을 해석하는 시도!'로 되어 있으며, 전생소녀 현상은 이런 도시의 이상한 소문들의 하나로 분류되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12 1989년 8월 16일, 도쿠시마(徳島)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에 이르는 소녀 3명이 전생을 보기 위해 수면제를 나눠먹고 의식을 잃은 사건. 실제 행동한 것은 3명이지만 이들의 학교에는 서로 전생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 그룹이 십수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大塚英志, 『おたくの精神史 1980年代論』, 講談社現代新書, 2004, 278~279쪽을 참조하라.

13 변체소녀문자란 1970년대 소녀들이 스스로 만들어 크게 유행한 서체로, 기존의 서체에 비해 둥글둥글하고 선에 굴곡이 없는 문자를 가리킨다. 이 문자를 연구한 야마네 가즈마(山根一真)는 그 원인을 그 당시 유행한 샤프펜 사용, 가로쓰기의 보급, 만화의 영향을 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山根一真, 『変体少女文字の研究: 文字の向うに少女が見える』, 講談社, 1986을 참조하라.

2. 배경으로서 전후 일본 오컬트 붐의 역사

1절의 사례에서 살펴본 1980년대 소녀문화에서 나타나는 주술-종교적 요소에는 별, 달, 우주 등의 서양점성술과 환타지적 요소, 천사, 크리스마스 등 기독교적 요소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다양한 형태의 신비주의와 뉴에이지적 요소[14]가 반영되어 있다. 이는 소녀문화에서만 나타난 독특한 것이 아니라, 전후 일본사회의 종교문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현대 일본의 종교문화가 서구의 신영성운동,[15] 뉴에이지운동 등의 강력한 영향권 내에서 성장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1970년대 일본사회는 전후 최대의 '오컬트 붐'을 맞이하게 된다. 초능력, UFO, 환경오염에 대한 두려움과 종말론의 대두, 서구 문명에 대한 회의 등 서구에서 시작한 신영성운동과 뉴에이지운동은 일본에서 70년대 대중문화의 한 특징으로서 '오컬트 붐'을 불러왔고, 소녀들이 주로 향유하는 매체뿐 아니라, TV, 잡지, 신문 등 다양한 대중매체가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이 당시의 오컬트 붐에 대해서는 70년대는 '숨겨진 지식'이었던 오컬트가 주류사회에 나오게 되고, 미디어를 유통하는 소비 아이템으로 변모한 시대였던 데 비해, 80년대는 버블경제의 소비문화가 그 흐름을 진전시킨 시기였다는 요시다 모리오(吉田司雄)의 평이 정확하다 하겠다.[16]

또한 1970년대 오컬트 붐이 1990년대 이후의 정신세계 붐(精神世界ブーム)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80년대의 상황을 통해 분석하는 이치야나

14 뉴에이지운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박규태의 설명을 참조하라. "서구에서든 일본에서든 뉴에이지는 다면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그것은 대중문화, 학문세계, 문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현대 일본 문화의 구성요소로서 나타나고 있다. 신종교의 일부도 뉴에이지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유령, UFO, 임사체험, 사후세계 등 오컬트적인 것에 대한 관심, 애니미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스피리추얼리티 표상 등도 뉴에이지에 포함된다. 정신세계의 에콜로지적·테라피적 방향성, 이야기, 자기계발, 자기찾기, 심리통어기법 등도 뉴에이지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박규태, 『포스트-옴 시대 일본사회의 향방과 '스피리추얼리티': 옴 사건, 일본교, 네오-내셔널리즘』, 한양대학교출판부, 2015, 43~44쪽)

15 일본의 종교사회학자인 시마조노 스스무(島薗進)가 고안한 개념으로, 미국의 '뉴에이지'와 일본의 '정신세계'를 포괄하는 범주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운동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참가와 사적인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영성추구운동을 의미한다.

16 吉田司雄,「はじめに」,『オカルトの惑星: 1980年代, もう一つの世界地図』, 青弓社, 2009, 15쪽.

기 히로타카(一柳廣孝)에 따르면, 80년대 오컬트 붐의 많은 부분은 70년대와 유사하게 해외에서 가져온 다양한 요소였으며, "일본적 오컬티즘의 계보가 부상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것은 서구적 오컬티즘"이었다. 나아가 "1980년대를 종교 버블의 시대, 90년대를 그 잔해와 세기말화 가속의 시대로 보고 80년대를 석권한 무브먼트로서 3개의 N, 즉 뉴사이언스, 뉴에이지, 뉴아카데미즘"[17]을 드는 나카지마 와타루(中島渉)의 분석을 인용하고 있다.[18]

이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뉴에이지운동을 뒷받침한 학술적 배경인 뉴사이언스(New Science)다. 이치야나기는 뉴사이언스운동이 일본에 수입되어 70년대 후반 대두한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하게 된 과정을 고찰했다. 그는 당시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로 간주된 다양한 문제—UFO에서 초능력, 심령현상, 예언 등—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전체를 아우르는 운동으로서 뉴사이언스가 대두했다면서, 잡지와 출판, TV 등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치야나기에 따르면, "1978년 '정신세계의 책' 북페어가 개최되어 그 후의 전개를 예고하고 있었지만 79년에는 오컬트 전문지 『무』(ムー)가 창간, 80년에는 나중에 TV 미디어를 석권하는 영능력자 기보 아이코(宜保愛子)가 아사히방송의 와이드쇼에 출연하여 TV 데뷔를 장식하고 있다."[19] 나아가 "1980년대 뉴사이언스의 유행은 과학의 이름 아래 '정신세계'의 이론적 기반으로 기능함으로써 90년대 전후에 대두한 정신세계 붐을 지탱하는 토양이 되었다. 나아가 '정신세계'는 제3차 종교 붐에 대두한 신신종교의 위험한 부분에 불안해 하던 젊은층을 흡수"[20]했다고 분석한다.

17 이 중에서 뉴아카데미즘 자체가 종교학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새로운 종교성의 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자세한 것은 박규태, 『포스트-옴 시대 일본 사회의 향방과 '스피리추얼리티': 옴 사건, 일본교, 네오-내셔널리즘』 중에서 제6장 「영성적 지식인과 스피리추얼리티」를 참조하라.

18 一柳廣孝, 「カリフォルニアから吹く風: オカルトから精神世界へ」, 『オカルトの惑星: 1980年代, もう一つの世界地図』, 青弓社, 2009, 230쪽.

19 一柳廣孝, 「カリフォルニアから吹く風: オカルトから精神世界へ」, 240쪽.

20 一柳廣孝, 「カリフォルニアから吹く風: オカルトから精神世界へ」, 250쪽.

그렇다면 전후 일본에서 오컬트 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2015년 출판된 『무 스페셜 전후 일본 오컬트 사건 파일』(ムー SPECIAL 戦後日本オカルト事件FILE)은 '일본에 일어난 오컬트 현상에 테마를 특화하여 연대별로 정리한 오컬트 전후 70년사'를 표방하는 대중서인데, 대략 10년 단위로 장을 나누고 다음과 같이 소제목을 붙이고 있다. 1945~1959년은 'UFO의 시대가 왔다!', 1960~1969년은 '아폴로 계획과 외계인의 음모', 1970~1979년은 '초능력과 노스트라다무스'다. 특히 1945년에서 1979년까지 화제가 된 오컬트 현상 대부분이 일본 고유의, 즉 역사적 맥락이나 일본에서 발생한 도시전설적 오컬트가 아니라[21] 서구 유래, 특히 우주과학과 관련된 오컬트 현상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로스웰사건(UFO, 외계인), 아담스키(금성인과 조우), 맨인 블랙, 아폴로 계획, 아틀란티스 유적 발견, 노스트라다무스 대예언, 유리 겔러와 초능력, 파티마의 성모 등, 한국에도 잘 알려진 오컬트 현상이 일본 오컬트사의 일부로 소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은 서구의 뉴에이지운동과 상당부분 중첩되며 "가장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초일상적인 오컬티즘, 영적 현상, UFO, 점성술, ETI(외계생명체), 잃어버린 대륙(문명), 꿈, 초능력, 전생 등에 이르기까지"[22]를 포괄한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1970년대 이후 소녀문화의 경우, 그 대표적인 매체인 소녀만화에서 나타나는 서구의 영향, 그중에서도 환타지와 신화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23]

21 가짜 천황 등장, 하네다 공항 아카토리의 저주, 입 찢어진 여자 등이 소개되긴 하지만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2 박규태, 『포스트-옴 시대 일본사회의 향방과 '스피리추얼리티': 옴 사건, 일본교, 네오-내셔널리즘』, 38쪽.

23 이런 상황에 대해 박규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70년대에 일어난 제3차 종교 붐은 크게 두 가지 현상, 즉 이른바 신신종교의 대두와 주술-종교적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스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간 주술-종교 붐 현상이 스피리추얼리티 붐과 연동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가령 영화 〈엑소시스트〉(1974)의 상영을 전후하여 심령물과 호러물이 유행하고, TV에서는 유리 겔러의 등장(1974) 이후 심령 현상이나 초능력을 다룬 방송이 두드러졌다. 한편 만화에서는 데즈카 오사무나 미즈키 시게루의 작품을 위시한 종교만화와 심령만화가 널리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소녀만화 장르에서는 지금까지도 판타지, 호러, 환생, 유령, 신, 천사, 요정, 용, 신선, 모노노케 등 주술-종교적 주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곧 이어 살펴볼 애니메이션이나 컴퓨터 게임은 물론이

소녀만화에서 나타나는 서구적 표상뿐 아니라, 소녀들이 주 구매층인 팬시용품(Hello Kitty 등)은 말 그대로 '서구적인' 이미지를 전유하여 만들어졌고, 바로 그 때문에 새롭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이때의 '서구적'인 이미지는 일본인이 상상한 서구로서 그 실체는 불명확하며 서구인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다양한 서양적 요소를 취사선택한 절충적이고 무국적적인 것이고, 바로 이 무국적적인 모방으로 인해 '일본적'이라고 간주되었다. 소녀문화에서 나타나는 주술, 사랑점 등이 별, 우주 등의 서양점성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상이 일본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서구의 정통 점성술이나 기독교의 장엄한 종교적 표상과는 달리, 특정 요소만을 선별하여 로맨틱하고 매끄럽고 무해하며 귀엽게 가공한 이들의 오컬트적 이미지에서 절충성과 무국적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녀들의 창작 주술 붐과 전생소녀 현상: 소녀들의 물신주의

1) 소녀들의 창작 주술 붐: 하시사코 미즈호(橋迫瑞穂)의 『마이 버스데이』 분석을 토대로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1970년대 오컬트 붐은 일본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 중 소녀문화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점이 대중문화로서 붐을 일으킨 것은 60년대부터였는데,[24] 동양의 역술과 손금이 처음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60년대 초반이었지만, 특히 여성들의 인기를 끈 서양점성술과 타로점이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대중화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였다.[25]

고 1979년 소년잡지 『무』와 소녀잡지 『마이 버스데이』의 창간으로 봇물처럼 쏟아져나온 각종 오컬트 잡지 등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박규태, 『포스트-옴 시대 일본사회의 향방과 '스피리추얼리티': 옴 사건, 일본교, 네오-내셔널리즘』, 313~314쪽.

24 이하의 내용은 주로 「第86回 常設展示 占いあれこれ」, https://rnavi.ndl.go.jp/kaleido/tmp/86.pdf 国立国会図書館展示(최종 검색일: 平成10年1月27日~2月21日 1998年)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25 서양점성술 서적은 1967년 최초로 간행되었고, 타로점이 인기를 끈 것은 1974년경이라고 알려져

시게토미 사키(繁富佐貴)는 1980년대에 나타난 소녀에 대한 언설을 분석하면서, 70년대까지는 젊은 여성에 대해 '소녀'라고 부르기보다는 '여자아이'(女の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소년'과 짝(対)을 이루는 것으로 '소녀'가 사용되어 '소년소녀'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26] 즉 지금과 같이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서 소녀를 주목한 것은 1980년대에 주로 나타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만화나 아동서가 인기를 끌면서 1970년대에는 다양한 입문서와 미니백과 시리즈가 유행했는데, 이 중 여자아이를 타깃으로 한 시리즈로 그 당시 인기를 끌었던 『쇼가쿠칸 미니레이디백과』(小学館ミニレディー百科)[27]는 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출판되어 전체 시리즈가 약 200권에 달한다.[28] 초기에는 남녀아동이 함께 읽는 '입문백과' 시리즈 중 일부가 포함되어 하위 범주로 출판되었던 이 시리즈('입문백과' 시리즈 중 몇 권이 '미니레이디백과'라는 별칭이 붙는 방식)는, 그 당시 여자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74, 75년을 기점으로 별도의 시리즈로 독립했다.

1970년대 중반 당시 이미 70권에 이른 '입문백과' 중에서 '미니레이디백과'는 4~5권에 불과한데, 그중에서 75년 출판된 시리즈 제2권이 바로 『행복별점』(しあわせ星うらない)이다. 표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동자에 반짝임이 들어가 있고 금발머리를 리본으로 묶은 여자아이 주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소녀만화의 전형적인 주인공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표지의 "별점으로 해피한 당신이 되세요! 누구라도 점칠 수 있는 컬러 다이얼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인상적이다.

다른 미니레이디 백과들이 '에티켓', '패션', '과자 만들기' 등을 테마로

있다.

26 繁富佐貴, 「1980年代の「少女」論の構造」, 『日本女子大学大学院人間社会研究科紀要』 15, 2009, 30쪽.

27 「『小学館ミニレディー百科』に見る, 女子の関心の移り変わり」, https://www.excite.co.jp/News/bit/00091190470502.html)(최종 검색일: 2017. 11. 29)

28 1960년대 후반~70년대생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에티켓 입문』 등이 해적판으로 출판된 적이 있다.

〈그림 2〉 쇼가쿠칸 미니레이디백과 제2권 『행복별점』 표지 일러스트(왼쪽) (출처: 아마존 재팬)
〈그림 3〉 『마이 버스데이』(マイバースデー) 창간호 표지(오른쪽) (출처: https://middle-edge.jp/articles/l0001945)

하고 있고, 시리즈 중 아주 초기인 두 번째 시리즈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1970년대 중반에 이미 점이나 주술에 대해 여자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이후에도 여러번 재판되었고, 80년에는 『사랑의 트럼프점』(愛のトランプうらない), 83년에는 『사랑의 꽃점』(愛の花うらない), 84년에는 『적중! 몰래 혈액형점!』(ピッタリ!血液型うらないドッキリ!) 등, 90년대 초반, 시리즈가 중단될 때까지 주술이나 점에 관한 단행본이 정기적으로 출판되었다.[29]

이렇게 점술, 주술이 소녀들 사이에서 대중화되면서 1979년에는 소녀들을 위한 점술잡지로 『마이 버스데이』(マイバースデー)가 창간되었다. 전성기

29 물론 이는 일본의 기성세대가 점술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이후 점술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후에도 점술과 관련하여 최초의 베스트셀러인 『역술입문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여는 법』(易入門 自分で自分の運命を開く法)(黄小娥)이 출판된 것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동양의 역술, 손금 등이었고 이는 일본의 종래 종교문화의 일부분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소녀들이 좋아하는 주술과 점술은 서양에서 유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에는 공인 40만 부에 이를 정도로 점술 관련 잡지 중에서는 놀라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구독층은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약 70%를 점했다고 한다.[30] 이 잡지는 한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타깃으로 한 『쁘띠 버스데이』(プチバースデー, 1987년 창간), OL(Office Lady)을 대상으로 한 『MONIQUE』(1989년 창간) 등을 자매지로 발행할 만큼 폭넓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다.[31]

창간호부터 2006년 휴간호까지 이 잡지를 분석한 하시사코 미즈호에 따르면,[32] 앞에서 살펴본 『쇼가쿠칸 미니레이디 백과』 시리즈의 구성과 유사한 점이 드러난다. 우선 『마이 버스데이』는 소녀잡지로서 점과 주술에 관한 기사와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기사가 양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90년대 중반부터 점과 주술은 이 잡지의 주력 내용에서 빠지게 되고 2006년 휴간된다. 그리고 많은 내용이 패션, 미용 및 DIY용품 등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 그 당시 소녀들이 고민하는 연애와 성 문제, 학교의 인간관계에 대한 카운슬링 코너 등에 배분되었으며, 독자들의 교류도 잡지 코너인 '헬로 버스데이'를 통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잡지의 주요 내용인 점과 주술에 관한 기사는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녀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등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주술과 점이라든지, 독자들이 창안한 작은 주술을 전문가의 감수 후 지면에 소개하여 서로 공유하고, 이 잡지의 주도적인 점성술사였던 루네 반 달 와타나베(ルネ·ヴァン·ダール·ワタナベ)[33]가 제시한 개념으로 이 잡지의 독자들이

30 『미니레이디 백과』의 점술 책이 1975년 최초로 출판된 것을 생각해보면 『미니레이디 백과』를 읽었던 여자아이들이 성장하여 『마이 버스데이』의 독자가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31 「占いとおまじないに明日を託した少女達の雑誌「マイ·バースディ」」, https://middle-edge.jp/articles/I0001945(최종 검색일: 2015. 11. 10)

32 이하의 내용은 橋迫瑞穂, 「「占い·おまじない」と少女: 雑誌『マイバースデイ』の分析から」, 『宗教研究』 88(3), 2014, 597~619쪽. 日本宗教学会의 내용을 본 논문의 목적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33 일본의 남성 서양점성술사로 『마이 버스데이』 이외에도 많은 여성잡지(『anan』, 『nonno』 등)의 관련 기사와 특집을 감수해왔다. https://ja.wikipedia.org/wiki/ルネ·ヴァン·ダール·ワタナベ

꿈꾸었던 자기상인 백마술을 사용하는 '마녀소녀'(魔女っこ)가 일상생활을 통해 수양하면서 자신의 주위에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설정 등은, 이 당시 소녀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괴리와 갈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마이 버스데이』가 내세운 라이프스타일과 그를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점, 주술', 그리고 백마술에 기반한 '마녀소녀'가 결국 "아름다움, 귀여움, 다정함이라는 소위 소녀다움의 가치를 독자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에서 『마이 버스데이』는 동료의 존재를 보여주고 젠더에 바탕한 규범의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갈등에 마주할 내면을 더 강화하는 체제를 생산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학교와 젠더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은폐하는 것이기도 했다"[34]고 하시사코는 분석한다.

환언하자면, 『마이 버스데이』가 단순히 소녀들이 학교를 주축으로 한 일상생활에서 겪는 갈등의 해결방식이나 도피처를 제공했다는 (즉, 현실 도피적 성격이 강했다는) 기존의 독해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고 주위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백마녀'라는 이상형을 향해 전국의 동료(이 잡지의 독자)들과 함께 수양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능동적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 버스데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에 내포된 젠더적 측면이 억압적일 수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마이 버스데이』에서 수집하여 공유하기 시작한 소녀들의 창작 '점, 주술'은 이후 별도의 단행본으로 편집되어 출판되기 시작한다. 『마이 버스데이』 창간 초기에는 서양점성술에 대한 읽을 거리와 전문 지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 입문에 필요한 지식 등의 비중이 높았던 데 반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독자들이 스스로 만든 점과 주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MB메이트'(MBメイト)로 불리는 열성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34 橋迫瑞穂, 「「占い·おまじない」と少女: 雑誌『マイバースデイー』の分析から」, 612~613쪽.

회원제 클럽을 통해 직접 만나서 교류하는 독자들이 증가했다. 『마이 버스데이』에서 최초로 소녀들의 창작 점, 주술을 테마로 한 단행본을 출판한 것은 1982년 『내가 알고 있는 주술』(私の知っているおまじない)이 최초로, 이후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서적이 출판되어왔다.[35]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주술이 창작되고 공유되었는가? 다음은 1987년에 출판된 『마이 버스데이』 특별편집 『내가 알고 있는 주술 1000』(わたしの知ってるおまじない1000)에 실려 있는 창작 주술인데, 학용품인 지우개와 사인펜, 그리고 주술을 거는 사람의 끈기만이 필요한 소박하고 간편한 주술이다.

> ★(1위) **몰래 마음이 전해진다**
>
> 항상 사용하고 있는 지우개에 지워지지 않는 사인펜으로 그이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걸 친구들에게 빌려주거나 하지 않고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면서 끝까지 사용하면 당신의 러브는 성공합니다. 케이스에 넣어서 지우개를 쓰면 누구도 보지 못하고 몰래 소원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사용할 일도 없는데 지우개를 자꾸 문지르면 안돼요. 항상 하던 대로 사용해서 끝까지 사용해야 합니다.[36]

이와 같이 주로 연애의 성취나 좋아하는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얻는 등, 소녀들 주변의 자잘한 소품을 사용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이름을 쓰거나 특정한 문양을 그리면서 기원을 하는 이런 식의 주술을 실제로 소녀들이 만들어 잡지 독자 코너를 통해 공개하고, 또 효과가 어땠는지 그 독자 코너에 보내서 더 효력이 있는 주술이 더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마이 버스데이』와 그 외 소녀를 타깃으로 하는 잡지들이 실었던 독자들의 주술 코너 등은 그 당시 소녀들의 다양한 주술-종교적 실천이 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에게 유통되고 강화되는 주요한 통로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이 버스데이』에서 다룬 내용이 고도의 논

35 「マニアックで悪いか!! 「増刊My Birthday」に学ぶ, 80年代オカルティック·ガ·ルライフ♡」, http://yukacinnamon.jugem.jp/?eid=418(최종 검색일: 2017. 11. 29)

36 My Birthday 特別編集, 『わたしの知ってるおまじない1000』, 実業之日本社, 1987, 27쪽. 현재 이 페이지의 이미지는 「ユカスコ世界遺産☆「わたしの知ってるおまじない1000」(1987)」, http://yukacinnamon.jugem.jp/?eid=349(최종 검색일: 2017. 11. 29)에서 볼 수 있다.

리가 필요한 서양점성술이 한 축이었다면,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이런 소녀들의 창작 주술이나 사랑점이었고, 이런 일상생활의 사소한 사물을 이용한 창작 주술은 기존의 종교적 실천—민속학적 주술 등—과는 연결점이 희박했다는 사실이다. 오쓰카는 이런 창작 주술이 '글자를 쓰는' 내용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소녀만화의 세계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표현된 것이라고 분석한다.[37]

하시사코 또한 『마이 버스데이』에 투고된 창작 주술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연애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자신'과 '상대방'의 '이름'을 '쓰는' 것이 주술의 내용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38] 나아가 창작 주술에 사용되는 물품이 일상용품뿐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바로 이런 물품의 제작은 주술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능동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39]

그렇다면 이 당시 소녀들의 주술-종교, 즉 페티시즘은 단순히 특정한 사물을 신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물을 이용하여 특정한 행동과 노력이 뒤따를 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뒤에서 그레이버의 물신주의 개념과 관련해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소녀들의 주술-종교적인 실천은 단순히 1970년대 오컬트 붐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거나, 일본인에게 내재된 종교성, 민속성에 대한 갈구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소녀문화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80년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팬시굿즈이라는 형태로 마법처럼 상품화되는 소비사회를 본격적으로 살아가던 소녀들이 발휘한 사회적 창조성의 한 소산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7 大塚英志, 『少女民俗学』, 光文社, 1989, 154쪽.

38 橋迫瑞穂, 「〈知識〉としての「占い / おまじない」と少女: 雑誌『マイバースデイ』, 読者投稿欄の分析から」, 『応用社会学研究』 58巻, 服部孝章先生·成田康昭先生退職記念号, 2016, 72쪽.

39 橋迫瑞穂, 「おまじないグッズ」における「手づくり」と少女: 『マイバースデイ』の事例から」, 『年報社会学論集』 27号, 2014, 147쪽.

2) 「나의 지구를 지켜줘」와 '전생소녀' 현상을 보는 시각

히와타리 사키의 소녀만화 작품 「나의 지구를 지켜줘」는 1980년대 전생소녀 붐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87년 연재가 시작되어 1994년 총 21권으로 완결된 이 작품은 다양한 논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본격적인 작품론보다는 소녀들의 하위문화로서 오컬트 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이 작품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전생소녀 현상'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전생소녀란 1980년대 중반부터 오컬트잡지 독자투고란을 중심으로 자신의 전생을 기억하고 전생의 동료를 찾아 앞으로 다가올 '최종 전쟁'(아마겟돈)에 대비하고자 하는 투고가 급증했던 현상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투고가 그 전형적인 사례다.

> 사바리아(사라), 웨리화리아(웨아), 카이 · 시바, 아메리아의 이름에 기억이 있는 분, 느낌이 온 분(닮은 이름도 OK!) 장생족, 수룡족 분, 아틀란티스의 무녀, 전사, 불, 흙, 물, 폭풍 중 무하나를 조종하는 분, 조종했던 분은 편지 주세요. 여기는 사라, 웨아, 아메리아입니다.[40]

물론 소녀들만 이런 투고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관련 투고물의 내용을 분석한 아사바 미치아키(浅羽通明)에 따르면, 유사한 투고 중 7할 정도가 자신의 전생을 알리고 동료를 찾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투고자는 중고등학교 소녀들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기성세대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이었지만, 이 당시 소녀들이 전생에 대한 지식이 많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전생을 소재로 한 소녀만화—특히 현대 일본을 사는 주인공들이 신화적이거나 우주적 전생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가 큰 인기를 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만화가 바로 전생소녀 현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논의되는 「나의 지구를 지켜줘」다.

40 浅羽通明, 「オカルト雑誌を恐怖に震わせた謎の投稿少女たち!」, 『別冊宝島92うさわの本』, 宝島社, 1989, 17~18쪽에서 발췌.

〈그림 4〉「나의 지구를 지켜줘」 1권, 22~23쪽(필자 촬영)

첫째, 이 만화는 1980년대 후반 버블 시대의 풍경과 젊은이 문화, 즉 시대의 공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1, 2권에서 묘사되는 버블 시대적 분위기는 히와타리의 그 당시 그림체와 잘 맞아떨어져 그 당시 팬시 굿즈 등에서 보이는 독특한 선과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1권 초반부 남녀주인공인 링과 앨리스가 다투면서 호감을 키워가는 부분은 전형적인 80년대 팬시 굿즈적 분위기의 귀엽고 동글동글한 선과 물방울, 풍선, 꽃무늬 등의 문양으로 구성된 개그풍의 팝컬처적인 컷이 이어진다. 또한 앨리스는 전생을 믿기 전인 중반부까지 70년대 소녀만화, 특히 '오토메칫쿠'(乙女ちっく) 만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내성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여주인공상을 잇고 있으며, 링의 짓궂은 장난에 당할 때마다 침대에서 인형을 껴안고 홀로 내면의 독백을 하면서 잠드는 장면 등은 소녀적 분위기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둘째, 우주와 자연의 힘을 중시하고 전생과 현생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 외계인을 인간형으로 묘사하고 이들이 지구를 지켜보고 관

련을 맺고 있는 설정, 여주인공인 모쿠렌이 태어날 때부터 식물과 소통하고 이들을 기르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등 에코주의적·오컬트적 모티브가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타 도시히로(大田俊寛)는 현대 오컬트 사상의 근원으로서 20세기 초반에 헬레나 블라바츠키(러시아어: Еле́на Петро́вна Блава́тская, 영어: Helena Petrovna Blavatsky)가 창설한 신지학(神智學)에 바탕을 둔 '영성진화론'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만화가 토대로 하는 세계관이 영성진화론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타가 정리하는 영성진화론의 특징은 크게 8가지[41]로, 이 중 「나의 지구를 지켜줘」는 각각의 요소들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용 전개 및 인물 설정 등,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1) 영성진화(인간은 육체 외에 본질인 '영체'를 가진다)와 (2) 윤회전생(전생의 반복과 카르마의 축적)은 이 만화에서 주요한 등장인물이 모두 전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본 행성의 파괴와 지구의 통제, 수수께끼의 질병 등)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다시 태어났다는 설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4) 인간신화/동물화(영적인 성장을 통해 진화 또는 퇴화)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성장을 모색했던 전생의 여주인공이 결국 그를 인정하지 않던 남주인공을 감화시켜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고, 현생에서도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으로 표현되며, (5) 비밀결사의 지배(고급령과 저급령)는 주요 등장인물들 자체가 전생에서부터 달기지에서 지구를 지켜보는 소수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고, 특히 전생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지도를 전담하는 사제 등이 존재하며 여주인공은 그중에서도 식물과 대화하는 특수 능력을 지닌 별도의 종족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생에서도 등장인물 중 일부가 현재의 비밀결사 조직(미국의 초능력자들)과 연결점을 갖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41 大田利寛, 『現代オカルトの根源: 霊性進化論の光と闇』, ちくま新書, 2013, 46-47쪽. 오타가 영성진화론의 8대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영성진화, (2) 윤회전생, (3) 과대(誇大)적 역사관, (4) 인간신화(神化)/동물화, (5) 비밀결사의 지배, (6)영적 계층화, (7) 영적교신, (8) 비교(秘教)적 전통, 메타종교.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하라.

으로 그려진다.

물론 대중을 위한 콘텐츠인 소녀만화 작품에서 영성진화론의 모든 요소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소년층이 주독자층으로 상정되는 만화작품에서 앞에서 살펴본 영성진화론적 설정 및 스토리 전개가, 특별한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현실을 그에 투영하는 독자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42]

셋째, 전생으로 표현된 이 세계와 달기지의 이야기, 특히 이들을 달기지에 보낸 후 본래의 혹성은 멸망하고 이들만이 달기지에 남아 지구에 대한 방침을 둘러싸고 사상적 투쟁을 거듭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불치의 전염병으로 죽어가면서도 평소부터 쌓여온 의심과 갈등으로 동료를 처벌, 격리하거나 서로 배척하는 모습 등은 1970년대 전공투(全共闘)의 아사마산장(浅間山荘) 사건[43]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해 현생의 지구를 조종해서 균형을 찾겠다는 남자주인공의 주장은 90년대 옴진리교에서 나타나는 세계관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물론 이 당시 전생 붐과 전생소녀의 등장은 사실 「나의 지구를 지켜줘」가 촉발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작품은 그런 붐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순수한 창작물이다. 이 만화가 많은 인기를 끌고 실제 연재 당시 소녀들이 사건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만화를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생에 대한 관심은 70년대 오컬트 붐 이후 일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했으며, 소녀만화에서 이를 소재로 차용한 것일 뿐 소녀만화가 전생소녀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2 연재 당시 「나의 지구를 지켜줘」에 대한 독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제9권에 포함된 '작가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43 전공투는 '전학공투회의'(全学共闘会議)의 줄임말로 1968년부터 1969년까지 일본의 대학 내 학생조직이 이념적·분파적 차이를 극복한 운동체로서 조직한 연합체를 가리킨다. 아사마산장 사건은 1972년 연합적군이 인질을 데리고 아사마산장에 숨어 외부에 대항한 사건으로, 진압 과정을 생중계하고 진압 이후 내부 투쟁으로 인해 12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구체적으로는「나의 지구를 지켜줘」연재 이전인 1983년부터『무』를 비롯한 오컬트 잡지에 이미 특정한 패턴의 전생소녀 투고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44] 실제로 아마겟돈이나 전생을 소재로 한 SF만화는 소년, 소녀만화를 가리지 않고 70, 80년대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나의 지구를 지켜줘」의 유명한 장면, 잡지『부』를 보고 전생의 동료들이 모이는 장면 또한 히와타리가 먼저『무』의 관련 투고를 본 후, 영감을 얻어 이 장면을 구상했다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아사바는 전생소녀들의 투고 내용은 주로 초능력과 UFO에 관심이 많은 기존의『무』독자들과도 큰 공통점이 없었다고 정리하고 있다.[45] '최종전쟁', '용사', '전생'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이 전생소녀들의 독자투고를 아사바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첫째, '전생자 패턴', 둘째, '전사 패턴'이다. 물론 이는 겹치는 경우도 있으며 '전생소녀' 현상 후기(1980년대 후반)로 갈수록, 점점 더 패턴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그들의 전생이 근대와 일본의 과거인 경우는 극히 적은데, 역사시대 자체가 드물고 '마리 앙트와네트 시대에 살았던 사람' 등이라는 예가 가끔 있을 뿐, 대부분 무대륙 등의 초고대를 상정하거나, 혹은 천상계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에 혼의 고향을 전세로 제시한 경우가 많다. 이때 천상계의 이미지는 그들의 표현을 종합하면 천사, 요정과 환수(유니콘과 불사조, 용 등)에 둘러싸여 천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전사 패턴의 경우는 만화, 애니메이션, SF 등의 서브컬처적 영향, 전생자 패턴에서는 주로 소녀만화의 영향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아사바는

44 「『ムー』の"前世少女" 年表」, http://tiyu.to/n0703sp1.html를 참조하라. 실제로「나의 지구를 지켜줘」에서 히와타리가 8권에서 작가의 말로 픽션 선언을 한 이후, 독자의견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가 있다. "히와타리 씨는 전생증후군을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5, 6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일시적으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전생의 기억 같은거요. 그 꿈을 꾸는 상태에서 그대로 현실로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현실이고 현실에서의 자신이 대리인이고 꿈을 꾸고 있는 상태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 한마디입니다."(9권 81쪽) 8권과 9권이 출판된 것이 1988~1989년경임을 고려해보면, 이미 이 만화 출판 이전에 관찰이 가능했던 현상인 것이다.

45 이상의 내용은 浅羽通明,「オカルト雑誌を恐怖に震わせた謎の投稿少女たち!」, 10~23쪽의 내용에 바탕하고 있다.

전생소녀에 대해 '만화와 현실을 혼동한 결과'라는 식의 분석과는 거리를 둔다. 실제 전생소녀들은 각각의 작품에 대해 '픽션'이라고 받아들일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나의 지구를 지켜줘」에서 나온 작가의 픽션 선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 소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보다는 대부분 픽션임을 알고 있었지만 작가가 그렇게 선언하는 것은 아쉽다는 반응,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존중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즉 실시간으로 이 만화를 읽은 독자들은 상대적으로 전생에 대한 이야기에 보다 친화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들의 대부분도 전생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전생에 대한 욕망은 자신들만의 세계를 갖고 싶다는 욕망에 기인하며 이를 구성하기 위해 서브컬처적 요소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아사바는 지적한다. 이전 세대는 내셔널리즘에 기반하여 '황군'(皇軍)이 되었고, 단카이 세대는 기업전사가 되었다면, 이 세대에게는 그런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6]

그렇다면, 여성들이 이런 전생이야기에 더 끌렸던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황군에도 기업전사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평범한 사회인의 길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설 곳은 없었다. 1980년대 여성들은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여 꿈이 좌절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나의 지구를 지켜줘」에서도 여주인공은 현생에서는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지만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식물을 자라게 하는 신비로운 힘으로 남주인공의 폭주를 막고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사랑을 성취한다. 그렇다면 전생소녀들에게 전생이야기는 당장의 소비는 허용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더 나갈 수 없다는 폐색감에서 도피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었을 것이다.

46 浅羽通明, 「オカルト雑誌を恐怖に震わせた謎の投稿少女たち!」, 23쪽.

4. 소녀들의 물신주의를 보는 시선: 오쓰카 에이지의 『소녀민속론』과 그레이버의 물신주의 논의

3절에서는 주로 소녀들의 주술-종교, 즉 소녀들이 전후 오컬트 붐의 영향 아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물신'으로서 주술-종교 및 전생소녀 현상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1980년대 소녀들의 주술-종교를 외부인의 관점에서 비평하는 오쓰카 에이지의 『소녀민속론』, 그리고 이를 전후한 일련의 평론을 통해 소녀라는 존재 자체가 물신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그레이버의 물신주의 논의에 바탕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쓰카가 소녀와 그들의 물신주의에 대한 '번역자'(translator)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살핀다.

오쓰카는 비평가이자 만화잡지 편집자로서 소녀만화, 그리고 그의 배경을 이루는 소녀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그의 첫 번째 본격적인 평론집인 『소녀민속학』에서 동시대 소녀문화를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소비사회론을 전개할 때 소녀의 위상이 일본인의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흔히 일본의 1980년대 소비사회는 모든 것이 상품화가 가능한 것으로서 차이화를 위한 기호로 환원되고 이미지가 현실을 앞서는 시대로 정의된다.[47] 이런 가정에 따르면, 사랑점이나 창작 주술 등 소녀들의 종교적 실천, 그리고 전생을 모티브로 한 소녀만화의 인기는 1) 이런 소비사회적 풍조에 대한 반감으로 보다 확실한 것에 대한 추구인 동시에, 2) 상품화된 종교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문화적 실천으로 해석된다. 오쓰카 에이지는 이를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의 민속학까지 연결지어 소녀를 "세기말의 신화를 잇는 '무녀의 후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소비사회화하여 생산과 거리가 멀어진 일본인의 모습이, 근대 이후 아이에서 재생산이 가능한 여성으로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는 분리된 채 유보된 시간을 보내는

47 요시미 슌야, 최종길 옮김, 『포스트전후사회』, 어문학사, 2013.

소녀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분석은 일견 소녀들을 일본민속의 원형에 위치지우고, 서구화=소비사회 일본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종교적인 갈망에 일본적인 색채를 입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소녀문화가 보여주는 다양한 페티시즘 — 예를 들어, '사랑점', '창작 주술 만들기와 공유하기', 'SF 소녀만화의 인기' 등 — 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 소녀들은 명백히 무녀로서 행동하고 있다. 따라서 '입욕'과 '아침샴푸'를 통해 항상 신체를 청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이란 재궁(齊宮)이고, 그녀들은 거기에 틀어박힌 무녀들인 것이다.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소녀들이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로서 무녀의 행동을 거의 무자각으로 연기하는 점에 오늘날 '소녀'들의 마음가짐을 슬쩍 엿볼 수 있다.[48]

> 그녀들은 '귀여운 공간'에 자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로서의 '세간'에는 일체 액세스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자에상'(サザエさん) 이야기에서 '죽음'을 둘러싼 소문을 던졌던 것처럼, 그녀들은 이 '순진무구한 공간'에 작은 바람구멍을 내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멍이란 '현실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세계' 또는 '영적 세계'를 향해 낸 것이다. '도시전설'이란, 이 영계에서 소녀들에게 보낸 메시지인 것이다.[49]

과연 이것이 그 당시 소녀들과 소녀문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전후 일본 종교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전후 일본사회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뉴에이지운동의 영향권 내에서 다양한 오컬트 붐과 그 대중문화화, 나아가 신신종교로 대표되는 새로운 종교성에 대한 추구가 강렬했던 사회라는 점은 명백하다.

48 大塚英志, 『少女民俗学』, 169쪽.
49 大塚英志, 『少女民俗学』, 187~188쪽.

사실 오쓰카의 초기 소녀문화론이 흥미로운 것은 그 진위나 분석의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그의 논의가 1980년대 당시 소녀를 보는 기성세대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녀들의 창작 주술을 '발견'하고 그를 분석하는 오쓰카의 태도에서 소녀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실천으로서 생산하고 공유하고 있는 주술-종교에서 드러나는 물신주의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때 물신주의란 사물이 그 생산된 맥락에서 분리되어 그 자체가 힘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기성세대에게는 불가해한 영역이다.

오쓰카는 이런 소녀들의 주술 붐에 대해 1) 대부분의 주술이 일본의 민속과는 관계없이 창작된 주술이라는 점(기존 종교와는 거리를 둔다는 점), 2) 사용하는 물건들이 소녀들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것들이라는 점(문방구, 생활잡화, 액세서리, 화장품, 식품 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는데, 이들은 그 당시 유행한 '팬시 굿즈'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3) 팬시 굿즈의 환경화, 4) 주술의 목적으로서 '소녀만화적 세계'를 꿈꾼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50] 표피적인 인간관계를 피해 자신만의 방에 틀어박혀 실용적 가치가 없는 귀여운 물품으로 자신의 주변을 채우고 소녀만화적 세계를 꿈꾸는 소녀들의 모습에서 민속학적 무녀를 읽어내는 오쓰카의 분석은 생산에서 단절된 존재로서 소녀가 일본인의 현재 모습이라고 하면서도, 일견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자 비이성적인 물신주의에 사로잡힌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창작 주술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물품 그 자체로는 일상용품에 지나지 않으며 물품 자체가 갖는 주술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녀들이야말로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런 물품을 페티시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주술을 실행하는 소녀들의 행동 그 자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행할수록 주술의 효력이 인정받게 되므로 자신들의 주술을 서로 공

50 大塚英志, 『『りぼん』のふろくと乙女ちっくの時代』, 187~212쪽.

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녀들의 창작 주술은 인류학자인 그레이버가 아프리카의 페티시즘,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유럽인의 시선을 분석하는 내용과 만날 수 있다.

> 따라서 아프리카인은 분명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들은 기이하거나 괴이하거나 색깔이 화려하기 때문에 주워든 작은 물건들에 애착을 느끼고, 마치 인격을 지닌 것처럼 취급하고, 숭배하며, 이름을 붙인다. 시장에서 임의의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들의 태도가 임의의 대상을 신들로 여기게 만들었다.[51]

그레이버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물신(주의)는 우리가 창조한 사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소외 alienation) 사물이 우리에게 지배력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타 문화(유럽인과 아프리카인)가 만나면서 아프리카인에게서 발견되는 '근친성'을 회피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유럽인이 볼 때 아프리카인은 가치가 없는 사물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오히려 유럽인이 사물에서 사회적 관계를 제거하고 보는 물질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이 분석은 소녀들의 창작 주술과 팬시용품에 대한 기호에도 적용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친구와 영원한 우정을 얻고자 팬시 굿즈를 선물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상용품을 사용해 창작 주술을 행하는 소녀들의 모습은 사회적 관계성이 소비를 통해 표현되고 연애조차 매뉴얼화 되었던 1980년대 일본사회 전반의 모습과 사실상 동형적인 것이다. 평범한 선물로는 전할 수 없는, 소녀들의 특별한 우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팬시 굿즈의 상품화를 이끌어낸 산리오가 기업 이념을 'social communication의 산리오'라고 한 것은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2]

51 그레이버, 『가능성들: 위계, 반란, 욕망에 관한 에세이』, 187쪽.

52 산리오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기업 이념은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팬시용품에 대한 강조와 함께 종교적으로도 읽힐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추상적인 문구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企業理念」(https://www.sanrio.co.jp/corporate/about/spirit/)에서 핵심 부분만 간추려 인용하겠다. **Small Gift Big Smile/아주 작은 선물이 큰 우정을 키웁니다/SOCIAL COMMUNICATION**의 산

기호화된 소비를 통해 사회적 관계성이 확립되는 것이 소비사회 일본의 풍경이었다면, 소녀들은 이를 일상 생활용품을 소재로 하는 주술을 창작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신비로운 메커니즘—소비가 사회적 관계성과 등치되는—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당시 소녀들의 창작 주술은 198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전후와 탈전후의 중첩, 생산주의와 소비주의의 대립, 가부장적 질서에 대항하는 페미니즘적 흐름이 서로 관계를 맺도록 강요받는 과정에서 이들이 겪었던 일시적이나 특별한 '상호문화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적 창조성의 결과물이다. 나아가 그레이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물신은, 정확히 '주술'과 '종교' 사이의 관습적인 구별이 의미 없어지는 지점, 그리고 부적이 신성한 것이 되는 그러한 지점에 존재한다. … 그렇다면 물신은 주술이 종교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이다. 우리가 창조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전용했던 대상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부과되는 힘으로 간주되는 장소 말이다. 정확히 그것들이 어떤 새롭게 창조된 사회적 유대를 체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53]

물론 이는 그레이버도 인정하고 있듯이, 새로운 사회적 창조성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혁명적이지만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인 변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회적 창조성의 행위는 어느 정도 혁명적이고 전례 없는 것이다."[54]

나아가 사회적 창조성으로서 소녀들의 주술-종교와 전생소녀 현상은

리오//매일 행복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것은 우리들 인간의 마음으로부터의 소망입니다//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게 아닐까요?/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이 사업들을 통해 우리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마음을 선물하고 마음을 전하는 비즈니스입니다.**//슬플 때, 괴로울 때, 행복할 때… 어떤 때에도 마음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행복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들은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강조는 필자)

53 그레이버, 『가능성들: 위계, 반란, 욕망에 관한 에세이』, 220~221쪽.

54 그레이버, 『가능성들: 위계, 반란, 욕망에 관한 에세이』, 228쪽.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활성화된 소녀문화론, 특히 소비사회 일본에서 발달한 '귀여움의 문화'를 상징하는 근거로 전유되었다. 그리고 이후 일본사회에서 소녀에 대한 물신주의, 즉 소녀에 대해 성적인 뉘앙스를 띤 페티시(fetish)적 관심을 강화하는 논리와 접속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오쓰카는 『소녀민속학』 프롤로그에서 소녀와 소비문화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물론 남자들도 학생시대부터 당당하게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는 소비자다. 하지만 남자는 그래도 언젠가는 샐러리맨이 되어서 생산 시스템 말단 정도에는 액세스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소녀들은 그럴 필요도 없다. 커리어 우먼을 지향하는 소녀도 있겠지만 남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데 대해서 여자들은 계속 놀기 위해서 OL이 된다. 그녀들은 소비하는 사람이므로… 하지만 우리는 '소녀'를 비웃지 못한다. 왜냐면 '소녀'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므로.

오쓰카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킨셀라(S. Kinsella)는 몰역사적인 분석인 동시에 민속학에서 전제하는 일본인적 에센스를 현대 소비사회의 소녀에게 투영함으로써 소녀의 신체에 대한 내셔널리스틱(nationalistic)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55] 또한 이 글을 읽는 현재의 우리는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의 '잃어버린 20년'을 알고 있는 입장으로 오쓰카의 논리가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소녀의 이미지를 전유(appropriation)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즉 오쓰카가 분석대상으로 삼는 소녀들'의' 물신주의는 킨셀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소녀들'에 대한' (일본 남성의) 물신주의로 번역 가능한 것이다.

다만 오쓰카가 애초부터 내셔널리스틱한 의도를 지니고 소녀문화를 분

55 Sharon Kinsella, "Black Faces, Witches, and Racism against Girls," *Bad Girls of Japan*, Palgrave Macmillan, 2005, pp.149~150.

석했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그가 소녀들의 물신주의에 주목한 이유는 역시 그레이버와 유사했을 것이다. 그레이버가 물신주의를 유럽과 아프리카 전통, '둘 사이의 충돌의 산물'이자 사회적 창조성의 표현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쓰카 또한 소녀들과 기성세대 둘 사이의 충돌의 산물이자 그 충돌이 만들어낸 사회적 창조성으로서 소녀들의 물신주의를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비평가로서 오쓰카의 태도는 진지하고 일관된 것이며, 기성세대의 '일본적인 것'에 대한 불안감을 투영하는 존재로만 소녀들을 보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소녀민속학』이 1980년대 일본사회와 종교적 실천에 대해 갖는 비평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오쓰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제공하게 된 일종의 접속점으로서 '소녀'에 대한 관심이다. 시게토미는 1970년대, 80년대에 나타난 다이쇼 시대 이후 소녀문화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소비사회론적 소녀문화론이 원래는 이질적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오쓰카의 소녀문화 비평이 이 두 흐름을 접목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1980년대의 소녀문화론이 탄생했다고 분석한다.[56]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자는 『소녀민속학』에서 오쓰카가 주목한 '소녀들의 물신주의'가 1980년대 현재화된 소녀들의 신체에 대한 성적 관심, 즉 90년대 이후의 소녀들에 대한 (성적) 물신주의와 접속했다는 점 또한 세밀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녀들의 물신주의가 소녀들에 대한 물신주의로 전유되는 조건과 순간이 80년대 후반에 등장했으며, 이때 오쓰카는 '번역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 번역자란 "순수하게 말하는 이, 즉 1인칭이 되는 것도, 순수하게 듣는 이, 즉 2인칭이 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자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완전한 관찰자가 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번역자란 인격으로 다룰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역할"[57]이라고 한 사카이 나오키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56 繁富佐貴, 「1980年代の「少女」論の構造」, 『日本女子大学大学院人間社会研究科紀要』 15, 41쪽.
57 사카이 나오키, 『번역과 주체』, 이산, 2005, 137쪽.

사회적 창조성으로서 소녀들의 하위문화와 그들의 소박한 물신주의에서 1980년대 일본 소비사회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고자 했던 오쓰카의 '번역'을 통해 소녀들의 물신주의는 80년대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 모두의 문제가 되었고, 주류사회에 접속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1980년대 중반 이후, 10대 여성, 특히 여고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를 아이돌 산업으로 연결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일본의 매스미디어가 그 환상의 바탕으로 삼고 있던 것이, 정작 오쓰카의 소녀문화론에서 분석하는 소녀들의 물신주의 — 현실에서 유리되어 주위를 팬시 굿즈로 가득 채우고 사랑점과 창작 주술을 통해 전생에서부터 이어지는 인연을 꿈꾸는 소녀만화적 일상을 살아가는 이미지 — 였다는 아이러니는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여고생에 대한 일본사회, 특히 성인 남성의 집착적인 시선은 이런 가공의 소녀상에 대한 물신주의적 시선이었으며, 90년대 이후의 '고갸루'(コギャル)[58] 붐과 원조교제 현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59]

이처럼 소비 행위를 통해 모든 것이 기호화된 1980년대 일본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창조성이었던 소녀들의 물신주의는 '번역자'로서 오쓰카를 통해 소녀에 대한 물신주의로 수렴되어 "여고생 자신이 여고생이라는 점의 가치를 서서히 자각하게"[60] 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다. '고갸루'라는 이름 아래 교복이라는 기호가 현실을 살아가는 소녀들을 압도하여 그 자체의 힘을 갖고 이를 '소녀들의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명칭을 붙여 적극적으로 소비했던 1990년대 일본사회의 모습이야말로 소녀들에 대한 물신주

58 고등학교와 영어 걸(girl)의 속어인 갸루(gal)를 조합하여 만든 신조어로 주로 유행하는 옷차림을 하고 번화가에 몰려드는 여자중고생을 의미한다.

59 1980년대 초반, 미소녀만화의 대두 및 1985년 방영이 개시된 여성 아이돌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저녁노을 야옹야옹』(夕焼けニャンニャン)의 영향 등, 소녀에 대한 남성들의 컬트적인 관심은 1985년 출판된 『도쿄여자고교복도감』(東京女子高制服図鑑)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책은 그 당시 도쿄도 내의 사립고등학교 151개교의 여자 교복을 일러스트와 간략한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출판 당시에는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이후 여고생 붐을 선도한 일종의 효시로 간주되고 있고, 1990년대 초반까지 매년 업데이트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60 難波功士, 「戦後ユース·サブカルチャーズをめぐって(5): コギャルと裏原系」, 『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紀要』 100, 2006, 102쪽.

의가 다다른 하나의 극점일 것이다.[61]

5. 나가며

4절에서 살펴본 전생소녀 현상은 1990년대에 들어가면 급격하게 퇴조한다. 이때 계기가 된 것은 1절에서 소개한 전생을 보기 위해 자살을 시도한 사건인데, 실제 사망자는 없었지만 기성세대는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철모르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소녀들을 우려했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생소녀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사실 잡지 『무』를 비롯한 유사한 오컬트 잡지에 투고되었던 많은 엽서를 생각해보면 전생을 보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소녀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사례이며, 대부분의 전생소녀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것임이 명확해진다. 실제로 자신이 아마겟돈을 대비하는 전사이자 무녀라고 소개한 20세의 여성은, 전생에 전사였다는 사실을 각성한 직후에는 친구들과 매일같이 모였지만 지금은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전쟁이 없는 한, 보통의 인간으로서 지금의 생활을 제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아요? 전생이 뭐든지, 내용물이 누구든지,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지금은 인간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우선,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땅에 발을 제대로 디디고 살지 않으면 다른 걸 할 자격은 없어요.[62]

61 소녀문화의 '번역자'로서 오쓰카의 역할은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1980년대에 일본사회에 일어난 본질적인 변화로서 소비사회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소녀'에 대한 주목 및 기존의 소녀에 대한 회고주의적인 학술적 관심, 나아가 주류사회의 속류적 관심과 대중문화의 변모라는 각각의 흐름은 명백히 이질적인 것이었다. 이런 이질적인 흐름 간의 '비연속의 연속'을 시도한 저작으로서 『소녀민속학』과 1990년대 소녀에 대한 물신주의의 접속, 그리고 그를 둘러싼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62 新山哲, 「人類救済の戦士たちは, チョコパフェがお好き!」, 『いまどきの神さま』, 宝島社, 1990, 160쪽.

이런 내용을 보면 옴진리교 등의 신신종교와 전생소녀의 관계는 상당히 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화「나의 지구를 지켜줘」에서도 결국 여주인공은 전생과는 달리 태어난 현생의 자신을 긍정하면서 전생에 얽매여 지구를 조종하려는 남주인공을 제지하고 현생에서 살아가도록 설득한다. 이 만화는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만, 폭주하는 남주인공의 모습에서 그 당시 이미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던 옴진리교로 흘러간 젊은이들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옴진리교가 서브컬처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역시 이는 소녀만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전생소녀들과는 다른 범주의 종교적 실천을 했던 집단—특히 남성—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소녀들의 창작 주술과 사랑점은 이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아마도 체계적인 종교성을 회피하고 또래문화로서 자신이 창작하여 또래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실제로 필자가 소장 중인『마이 버스데이』편집부가 간행한 소녀들의 창작 주술 책『파워 업! 주술&징크스』(パワーアップ!おまじない&ジンクス)는 2002년에 출판되었는데, 징크스, 주술, 별자리, 꿈해몽, 손금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책으로 최근 그 수는 급격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비슷한 종류의 책이 출판되고 있다.

이 주술 책에 실린 그 당시『마이 버스데이』선전을 잠시 살펴보자. 잡지 자체는 2006년 휴간했지만, 2002년 당시 선전에는 "반에서 인기인이 될 수 있는 화제가 가득찬 정보지!… 즐거운 심리 테스트와 점이 가득 실려 있어. 신경 쓰이는 사랑 이야기와 친구들 이야기, 멋내기 이야기도 가득. 마이 버스데이를 읽는 사람은 학교에서도 대인기"라고 선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선전문구에서 '주술'이 사라진 대신, '심리 테스트'가 가장 먼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80년대 창작 주술 붐을 이어 90년대를 풍미한 '자기 찾기 붐'(自分探しブーム)이 남긴 영향을 이런 변화에서도 명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63]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전후 일본 오컬트사건 파일』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사건은 1945~1979년의 사건에 비해 일본 국내의

사건이고 이전 시대만큼 큰 사건이 없다. 각장의 소제목을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1980~1989년은 '버블전성기와 쇼와의 종언', 1990~1999년은 '세기말과 정신세계로의 여행', 2000~2015년은 '새로운 종말과 미래를 향해'로 되어 있다. 1979년까지의 강렬한 사건들—외계인, UFO, 종말의 예언 등—에 비해 1980년대 이후의 오컬트 사건은 그 위력이 약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책은 2000~2015년에 대한 총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이런 중에 과거 오컬트적 중요 아이템도 수명을 다한 때를 맞기 시작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심령사진과 UFO 사진이 개인이 간단하게 가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불가사의한 것은 누구도 그런 사진과 비디오에 흥미를 갖지 않게 된 것이냐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오컬트 현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 현저해지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
> 혹시 앞으로는 인터넷에 사는 유령 등의 존재가 클로즈업되게 될지도 모른다.[64]

여기에는 호리에 노리치카[65]가 논하는 것처럼 '젊은이 문화'가 사라지고 점점 더 종교적 운동이 사라지는 일본사회, 그리고 그 대신 사적 비밀로서만 살아남게 된 스피리추얼리티(spirituality, スピリチュアリティ)의 모습이 보인다. 신종교, 신신종교적 요소는 믿지만 그것을 자신만의 비밀로 삼는 젊은 세대와는 달리 최근의 스피리추얼리티 붐을 이끈 것은 집단적인 종교적 실

63 이와 관련해서는 또래집단의 창작 주술이 차지했던 자리를 프로 점술가가 주도하여 1 대 1 상담이 주가 되는 점술이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점술의 '여성화'—점술가도 고객도 모두 여성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다네다 히로유키(種田博之)의 보고가 있다. 種田博之, 「占い師の特徴-現代日本社会における「自発」-「体系的知識」型への傾性」, 『産業医科大学雑誌』 23(3), 2001, 263~276쪽. 2000년대 이후 소녀문화에서 점술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인류학자 Laura Miller, "The Divination Arts in Girl Culture: Differentiation and Uncertainty," *Capturing Contemporary Japan*, 2014를 참조하라.

64 オカルト雑学探求倶楽部, 『ムーSPECIAL 戦後日本オカルト事件FILE』, 学研, 2015, 200~201쪽.

65 堀江宗正, 『若者の気分 スピリチュアリティのゆくえ』, 岩波書店, 2011.

천—창작 주술 등을 포함한—을 경험한 30~40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소녀들의 주술-종교적 실천과 전생소녀 붐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 또한 (기성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젊은이 문화'라는 맥락이 컸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일본의 종교성을 생각할 때 또 다른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특집 | 현대 일본사회와 종교

1980년대 소비사회와 소녀 물신주의(fetishism):
창작 주술 붐과 전생소녀 현상을 중심으로 | 김효진

그레이버, 데이비드, 『가능성들: 위계, 반란, 욕망에 관한 에세이』, 그린비, 2016.

박규태, 『포스트-옴 시대 일본사회의 향방과 '스피리추얼리티': 옴 사건, 일본교, 네오-내셔널리즘』, 한양대학교출판부, 2015.

사카이 나오키, 『번역과 주체』, 이산, 2005.

浅羽通明, 「オカルト雑誌を恐怖に震わせた謎の投稿少女たち!」, 『別冊宝島92うさわの本』, 宝島社, 1989.

一柳廣孝, 「カリフォルニアから吹く風: オカルトから精神世界へ」, 『オカルトの惑星: 1980年代, もう一つの世界地図』, 青弓社, 2009.

大田利寛, 『現代オカルトの根源: 霊性進化論の光と闇』, ちくま新書, 2013.

大塚英志, 『少女民俗学』, 光文社, 1989.

大塚英志, 『りぼんのふろくと乙女ちっくの時代』, ちくま文庫, 1995.

大塚英志, 『「おたく」の精神史一九八〇年代論』, 講談社, 2004.

オカルト雑学探求倶楽部, 『ム—SPECIAL 戦後日本オカルト事件FILE』, 学研, 2015.

酒井直樹, 『日本思想という問題: 翻訳と主体』, 岩波書店, 1997.

繁富佐貴, 「1980年代の「少女」論の構造」, 『日本女子大学大学院人間社会研究科紀要』 15号, 2009.

種田博之, 「占い師の特徴: 現代日本社会における「自発」-「体系的知識」型への傾性」, 『産業医科大学雑誌』 23(3), 2001.

難波功士, 「戦後ユース·サブカルチャーズをめぐって(5): コギャルと裏原系」, 『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紀要』 100号, 2006.

新山哲, 「人類救済の戦士たちは, チョコパフェがお好き!」, 『いまどきの神さま』, 宝島社, 1990.

橋迫瑞穂, 「「占い·おまじない」と少女:雑誌『マイバースデイ』の分析から」, 『宗教研究』 88(3), 2014.

橋迫瑞穂, 「おまじないグッズ」における「手づくり」と少女: 『マイバースデイ』の事例から」, 『年報社会学論集』 27号, 2014.

橋迫瑞穂, 「〈知識〉としての「占い / おまじない」と少女: 雑誌『マイバースデイ』, 読者投稿欄の分析から」, 『応用社会学研究』, 2016.

堀江宗正, 『若者の気分 スピリチュアリティのゆくえ』, 岩波書店, 2011.

吉田司雄, 「はじめに」, 『オカルトの惑星: 1980年代′もう一つの世界地図』, 青弓社, 2009.

Kinsella, Sharon, "Black Faces, Witches, and Racism against Girls," in L. Miller and J. Bardsley eds., *Bad Girls of Japan*, Palgrave Macmillan, 2005.

Miller, Laura, "The Divination Arts in Girl Culture: Differentiation and Uncertainty," *Capturing Contemporary Japan*, 2014.

국문초록

특집 | 현대 일본사회와 종교

1980년대 소비사회와 소녀 물신주의(fetishism): 창작 주술 붐과 전생소녀 현상을 중심으로 | 김효진

투고일자: 2017. 12. 29 | 심사완료일자: 2018. 1. 6 | 게재확정일자: 2018. 2. 8

이 글은 그레이버(D. Graeber)의 물신주의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1980년대 일본 소녀들의 주술-종교적 실천, 즉 물신주의를 1) 이 당시 도래한 소비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창조성'으로서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2) '번역자'로서 오쓰카 에이지(大塚英志)의 『소녀민속학』과 1980년대 소녀문화에 대한 일련의 비평을 분석함으로써 기성세대의 시선이 소녀들의 하위문화와 만났을 때 어떤 '번역'이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다.

뉴아카데미즘, 뉴에이지, 뉴사이언스의 득세와 신신종교의 성장이라는 1980년대 일본 종교문화의 전반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회적 집단이 아니라 소녀들의 물신주의가 호명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글은 그 당시 소녀들의 주술-종교적 실천과 전생소녀 현상을 잡지 및 소녀만화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핀다.

그레이버의 물신주의 개념에 바탕하여, 소박한 창작 주술과 사랑점, 그리고 전생소녀 현상으로 대표되는 소녀들의 물신주의는 이를 뒷받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집단 내부에서 널리 공유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성이 소비를 통해 표현되고 연애조차 매뉴얼화되었던 1980년대 일본사회 전반의 모습과 사실상 동형적이었다.

나아가 사회적 창조성으로서 소녀들의 하위문화와 소박한 물신주의에서 1980년대 일본 소비사회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읽어내고자 했던 '번역자' 오쓰카를 통해 소녀들의 물신주의는 기존의 소녀문화론 및 주류사회에 접속되었고, 이후 90년대 일본 남성들의 소녀에 대한 집착적인 물신주의로 전유되는 '비연속의 연속'이 발생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주제어: 물신주의, 창작 주술, 오쓰카 에이지, 소녀문화, 소비사회, 전생소녀, 번역

현대 일본사회의 요괴 붐 | 박전열

투고일자: 2018. 1. 5 | 심사완료일자: 2018. 1. 11 | 게재확정일자: 2018. 2. 8

일본에서 요괴를 논할 때, 대개 요괴론의 발전 과정은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현상으로서의 요괴, 이야기 속의 존재로서의 요괴, 조형화 시각화된 요괴 등이다. 요괴란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나 현상 또는 공포감이나 신비감 등을 명명한 것이다.

요괴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실체처럼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요괴나 괴이한 현상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는 동안 여러 요괴는 독립적인 형상과 성격을 지니며 개성적인 그림이나 이야기도 창작된다. 이 경우 처음에는 일정한 지역의 특성을 배경으로 개성을 지닌 요괴로서 이야기되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공감대가 확장되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요괴로 광역화하기도 한다.

요괴는 이야기의 세계라는 추상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제사나 의례의 대상이었던 과거의 위

영문초록 Abstract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AND RELIGION

Japan's 1980s Consumer Society and Girls' Fetishism: Focusing on Girls' Original Charms and Transmigration Girls Phenomena | KIM Hyojin

On the basis of David Graeber's discussion on fetishism as 'social creativity', I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ng Japanese girls' magico-religious practices during the 1980s as their social creativity to find a way of living in burgeoning consumer society. Also, I analyze how older generation "translated" girls' fetishism as their own subculture by rereading Otsuka Eiji's *Shōjo Minzokugaku* (Folklore of Young Girls) and his other works on 80's girls' culture, borrowing Sakai Naoki's concept of translation.

In spite of the religious circumstances of Japan during the 1980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dominance of new academism, new age movements and new science, and the development of new-new religions, why did people pay attention to girls' fetishism as the symbol of religion in 80s' consumer society?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I illuminate girls' magico-religious practices and transmigration girls phenomena in the 1980s by analyzing girls' occult magazines and girls' comics specializing in those issues. Original charms and deviations, created by girls themselves, and the idea of transmigration were very popular among girls in the 1980s, and a variety of media, especially magazines and girls' comics, allowed girls to share their ideas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within girls' community. While girls' fetishism had often interpreted in terms of Japanese nationalistic imagination,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girls' practices were rather byproducts of their efforts to interpret rapid consumerization of the Japanese society in which every social relationship could be expressed and converged on consumption, such as buying and presenting fancy goods.

Finally, I argue that Otsuka, who tried to read the essence of 1980s' consumer society through the girls' subculture and their fetishism as social creativity, was a "translator" who translated girls' contemporary fetishism into academic discourses on prewar girls' culture and mainstream society that sexualized girls. In this respect, Otsuka's work can be evaluated as a creation of "continuity in discontinuity," which eventually led to fetishism of girls and their sexuality in the 1990s.

• **Keywords:** fetishism, original charms, Otsuka Eiji, girl's culture, consumer society, transmigration girls, translation

Yōkai Boom in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 PARK Jeon Yull

Yōkai refers to the naming of attributes of sound, phenomenon, fear and mystery that are often difficult to describe. When *Yōkai* (妖怪) is discussed in Japan, its detailed contents can be